

협약명 샤갤러리 2026 아트경남 × 가나아뜰리에' 심의위원 위촉

체결일자 2026년 10월 14일

참여기관 샤갤러리, 아트경남, 가나아뜰리에

주요내용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와 유망 작가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 및 심의 진행

박진희 샤아트컴퍼니·샤갤러리·샤홀딩스 대표, '2026 아트경남 × 가나아뜰리에' 심의위원 위촉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와 유망 작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작가 창작실과 관람객 소통 연결하는 '아티스트 쇼룸' 기획... 실질적 미술시장 진출 모색

샤아트컴퍼니, 샤갤러리, 샤홀딩스를 이끄는 박진희 대표가 '2026 아트경남 × 가나아뜰리에' 프로젝트의 '아티스트 쇼룸'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진희 대표는 이번 심의에서 출품 작가들의 작품성과 독창성, 창작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 작가를 최종 선정하는 데 참여한다. 작품의 조형적 완성도는 물론, 작가 고유의 정체성과 향후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 작가의 발굴과 지속 가능한 창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아트경남(대표 박미)과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작가의 창작 활동 지원, 전시 기획 확대,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아트경남과 가나아뜰리에가 공동 추진하는 '아티스트 쇼룸'은 작가의 창작 작업실을 전시 및 관람객 소통 공간으로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기존의 단순 작품 발표 형식을 벗어나, 완성된 결과물뿐만 아니라 작품이 탄생하는 제작 과정과 창작 환경을 현장에서 다채롭게 공개함으로써 관람객이 미술의 창작 과정에 한층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심의에는 다양한 미술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원 대상 작가를 엄선하며, 신진·유망 창작자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작가와 관람객 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의를 맡은 박진희 대표는 미술품 컨설팅, 전시 기획, 작품 평가 및 감정 자문 등 미술 분야 전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샤아트컴퍼니, 샤갤러리, 샤홀딩스를 운영 중이다. 샤갤러리는 다채로운 기획전과 작가 초대전으로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해 왔으며, 샤아트컴퍼니는 미술품 유통 및 아트 컨설팅 기반의 미술자산 관리 서비스를, 샤홀딩스는 미술품 평가·감정 자문, 전문 수장고 보존 관리 및 미술품 담보 금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작가의 작품성과 유통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을 펼치고, 지역 기반 작가들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영역을 대폭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 시민과 미술 애호가, 예비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 아트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여 미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진희 대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에 담긴 깊은 개성과 성장 가능성을 세심히 살펴보고, 역량 있는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연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예술은 사람과 시대를 연결하는 힘이 있다"라며 "아트경남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작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